

▣ 박근종 칼럼 '오일쇼크' 너머 '스태그플레이션' 기로 봉착한 한국경제, 충격 총력 대응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벌어진 중동전쟁이 확산일로(激戰一略)로 치달으면서 장기화(長期化)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훼손 우려가 커지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확산 중이다. 무엇보다도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오일 쇼크(Oil Shock)'를 넘어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신(新) 3고(高) 고착화(固着化)로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가 심화하며 1970년대 오일쇼크 때처럼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Stagnation + Inflation)'으로 이어지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누란지위(累卵之危)에 봉착(逢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가 저성장·고물가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다.

미국·이란 간 숨 막히게 펼쳐지고 있는 중동전쟁 발(發) 고유가 충격이 갈수록 태산이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격 공습 이후 최근 한 주 동안 서부텍사스유(WTI) 기준으로 36% 폭등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주간 단위로는 1983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달 말 60달러 후반에서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폭등했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이 봉쇄되면서 수송길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의 감산 조치가 더해진 결과다.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은 원유 저장 시설이 모자라 생산량을 줄이는 강제 조치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유 저장 시설도 3주 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분쟁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원유 가격이 이번 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카타르(Qatar) 에너지 장관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는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유가(高油價)는 경제 규모 대비 석유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최소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오일 쇼크'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5%대 고물가 구간으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쟁 발발 전인에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개월째 2%대를 기록했

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연간 물가가 5%대로 치솟았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물가 불안이 확산하게 되면 내수가 얼어붙고 투자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비영이 터져 나온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유 가격 급등 탓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항공·해운·물류 부문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2% 성장이 물 건너가고 경수수지도 급속히 악화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란 정권 교체에 목표한 미국과 호르무즈해협을 막고 버티는 이란의 총출에 한국경제의 충격파도 시작됐다. 나프타(Naphtha) 원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여천NCC(나프타분해시설) 등은 고객사에 제품 공급 지연을 선언했다. '산업의 쌀' 나프타 재고가 2주 치 정도에 불과해 비상이 걸렸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별도 전략비축 품목이 아닌 탓에 작극란을 맞았다.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 석유화학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NCC 가동률이 더 떨어지면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범용 화학제품 공급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유가 급등으로 화학자 기업들은 당장 수급이 급감했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우는 시설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이예명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담합 단속과 100조 원대 금융안정 조치 등을 내놓았지만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나프타는 국내 정유사 생산과 수입산이 절반 정도씩인데, 수입산 중 60%가 중동산이다. 원유 역시 71%가 중동에서 수입되는 탓에 정유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 이사는 "유가 충격이 장기화하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inflation)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낮아졌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경우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자금시장이 경색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원유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국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로 예상해 내놓은 수치다. 중동 사태가 공급망 마비와 세계 교역 축소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마저 위축된다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석유업체들이 정상적인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불가항력' 선언을 하고 나서는 등 중동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국내 물가와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쿠웨이트 석유공사는 지

난 7일(현지 시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이 불가능해 원유 및 정제 처리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장치다. 다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일분 이상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얽히고설켜 있는 공급망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경제의 안전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방파제를 높이 구축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비상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통제·관리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작동하는 경제 위룸(War room | 전쟁 시 군 통수권자와 핵심 참모들이 모여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을 협의하는 곳)을 설치하여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즉각 대응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 상승은 각종 석유류 제품뿐 아니라, 운송비와 생산비 상승을 통해 식품·공산품·서비스 가격 전반을 끌어올린다. 에틸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각종 석유화학제품 생산도 타격을 받게 된다. 중동발 경제 파장은 외부 변수에 의한 결과이니만큼 정부 대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혼란을 틈탄 가격 폭수 상승, 업체 간 담합 등을 엄중하게 단속해 원가 상승 이상의 물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는 경우는 정부의 비축유(備蓄油)를 방출(放出)하거나 유류세 인하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실행(失期)하거나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않고 적기(適期)에 기민하게 실행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는 국내 2~3일 치 소비량에 불과하다. 원유와 천연가스 대체 공급처를 서둘러 확보하고 해상운임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비용 충격을 완충하는 공급망 안정 조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가 상황에 맞춰 자가용 운전자 등 단계별 수요 억제 대책도 미미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Voucher | 이용권)'나 유류세 환급 등 정교한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만 한다.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통신·의약품부터 일반 공산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격 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일로(惡化一略)로 치달고 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

션의 '쓰나미'를 인위적 가격 통제로 막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다. 정부가 글로벌 고물가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무리한 가격통제보다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행위 단속과 비효율적 유통구조 개선, 공급망 확대 등 구조적 해법과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부터 조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중동 발(發) '신(新) 3고(高)'에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락에 내몰리고 있다. 6,300을 돌파하며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치솟던 코스피(KOSPI) 5,000선으로 내려앉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고 있다. 이젠 기준금리 인하도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유가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1개월 안에 중동 전운이 걷힌다면 약 7개월분의 정부 비축유로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전쟁이 더 길어지고 악화할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원유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이 실물 경제로 전이(轉移)되면 한국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소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추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가 비율이 25%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국세는 초과 세수가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물가 상방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격을 왜곡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담합과 사재기는 숙야내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 동력을 잃지 않게 살피는 것도 중요한 책무로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수입 금융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동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물가 불안을 조기에 잠재워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각 부처와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연가스 대체 공급처를 서둘러 확보하고 해상운임과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비용 충격을 완충하는 공급망 안정 조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가 상황에 맞춰 자가용 운전자 등 단계별 수요 억제 대책도 미미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Voucher | 이용권)'나 유류세 환급 등 정교한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만 한다.

'외환 보유액' 확충은 물론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확대와 같은 환율 안정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예기치 못한 대외 약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은 신속 집행을 통하여 기정예산 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중동 유탄에 국가 경제와 민생이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경 예산 편성 카드에 사전에 서둘러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 전반 운영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지사정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서울시, 새 단장한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 리뉴얼 오픈

기존 굿즈샵·책마당 통합 리디자인...서울마이소울샵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서울시는 19일(목)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 서울 공식 굿즈샵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을 리뉴얼 오픈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굿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마이소울샵은 현재 DDP 디자인스튜디오, 서울관광플라자점, 명동관광정보센터점, 세종문화회관점, 여의도선착장점, 서울갤러리점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리뉴얼된 서울마이소울샵은 기존 굿즈샵과 책마당으로 분리돼 있던 세종라운지 공간을 통합해 방문객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좌석 확대와 동선 정비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휴식과 굿즈 경험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개방형 구조로 공연 관람객 뿐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추석 및 설 당일 휴무).

서울 공식 굿즈부터 브랜드 협업 굿즈까지 약 2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새로 개발한 오케스트라 해지 캐릭터 피규어 5종을 선보이며, 이번 굿즈는 서울의 문화 에

를 상징하는 상품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대표하는 기념 굿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자 해치를 포함해 바이올린 팀파니,플루트,호른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해지 5종 피규어는 '서울마이소울샵 서울갤러리점'과 'DDP 디자인스튜디오 온오프라인샵'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세종문화회관 아트 굿즈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 10종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 무용단 '일무'에서 영감을 받은 노리개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건축 요소를 담은 키보드 키캡 등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 예술단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지난해 9-11월 공모전을 통해, 총 86건의 접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한편, 서울마이소울샵 오픈을 기념해 3월 19일(목)부터 27일(금)까지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굿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며, 해지가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은 공연·전시 등 서울에서의 예술 경험을 간직하고 서울의 매력을 담은 굿즈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며 "2월에 오픈한 서울마이소울샵 서울갤러리점에 이어 세종문화회관점까지 리뉴얼 오픈하면서 시민분들이 서울굿즈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점이 서울 굿즈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니산 치유의 숲'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숲길·명상·기체조 등 걷고 쉬며 채우는 여행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3월부터 11월 까지 마니산 일원에서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달래줄 '마니산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강화군 대표 관광지인 마니산에 조성된 약 1km 길이의 숲길로, 2021년 인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도권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단순한 탐방을 넘어 웰빙·행

복·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소나무 숲길, 신단수 원터, 단군 놀이터 등을 순회하여 ▲숲길 걷기 ▲명상 ▲기체조 등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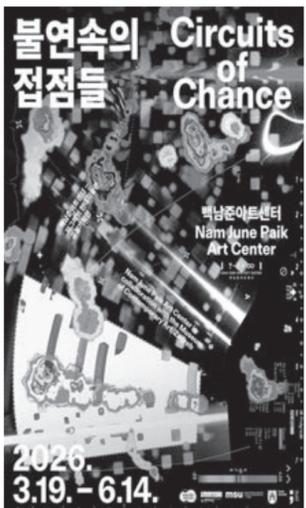
프로그램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하루 2회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다만 마니산 관광지 입장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강화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숲체험 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마니산은 민족의 영산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넘어, 이제는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힐터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이 강화에서 걷고 쉬며 건강한 에너지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남준아트센터, 자그레브 현대미술관과 공동기획전 '불연속의 점점들' 개최



백남준 예술과 크로아티아 미디어아트 미술관의 접점 조명...세 시기로 살펴보는 기술과 예술의 교차

뉴 텐던시부터 동시대 미디어아트까지...시대별 흐름으로 읽는 예술적 연결

그레브 현대미술관과 공동기획한 전시 '불연속의 점점들'을 3월 19일~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의 예술과 크로아티아 미디어 아트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기치 못한 접점과 공명을 형성해 왔는지를 조명한다.

양 기관의 오랜 협력 속에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지역과 시대를 가로지르는 예술적 실천이 교차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해 온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시는 크로아티아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세 시기로 나눠 구성했다. 먼저 1960-70년대 국제 미술운동 '뉴 텐던시'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조명

하고, 이어 1970-80년대에는 비디오 실험과 신체 탐구를 중심으로 매체와 인간 관계의 관계를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관객과의 관계를 짚는다.

초기의 유연적 접점은 점차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로 확장되며,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이어진 예술적 연결을 드러낸다.

특히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초기 퍼포먼스 영상 '리틀 2'를 비롯해 크로아티아 주요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개막식에서는 크로아티아 현대 음악 시'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조명

의 작품을 선보이는 공연이 열린다. 연주는 화음컴포지스트라가 맡아 전시의 개념을 음악적 경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막 주말에는 크로아티아 실험 영화와 비디오 작품을 조명하는 연계 상영회가 진행된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상 매체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하며, 참여 작가들의 초기와 최근 작업을 함께 선보인다.

상영 후에는 작가 단 오기를 모더레이터로 산드라 스테레레, 고란 트로블라크 등 참여 작가들과의 대화가 이어져 영상 예술의 흐름과 가능성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송민수 기자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자

	www.thesegeye.com 7까지: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규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장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